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YahooFinance: 연준 부의장 Jefferson, “중동 위기로 금리 동결 입장”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 주식 계속 하락... 나스닥은 ‘조정 단계’로

[중동 위기]

- Bloomberg: 트럼프의 협상 여지 발언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계속 공격
- Bloomberg: 루비니 교수 “트럼프, 이란 공격 수위 높일 가능성”

[오일]

- WSJ: 오일 시장은 트럼프의 긴장 완화 언급 반응 없어.. 고공 행진
- Bloomberg: 호주 투자은행, “전쟁 6월까지 계속되면 오일 2백 불 가능성”

[무역 전쟁]

- WSJ: 미 중국 정상 회담 앞두고 중국도 무역 조사 실시

[주택]

- WSJ: 미 모기지율이 연속 4주 상승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왜 MBA 학비 계속 오르나?
- Bloomberg: 세계 최대 중국 전기차 BYD, 예상보다 수익 저조

[오늘의 금융 지표]

-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YahooFinance: Fed's Jefferson sees higher inflation from Iran war near term, signals toward holding rates steady

연준 부의장 Jefferson, “중동 위기로 금리 동결 입장”

- 연준 부의장인 Philip Jefferson 어제 목요일 “단기적으로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끌어 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여파를 막기 위해 현재의 금리 수준은 잘 위치해 있다”라고 말했다.
- 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중동 위기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.
- 이에 따라 현재 연준 정책 입장은 기준 금리를 언제 조정할지와 그 폭을 결정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US Stocks Drop, Nasdaq 100 Falls Into Correction as Oil Climb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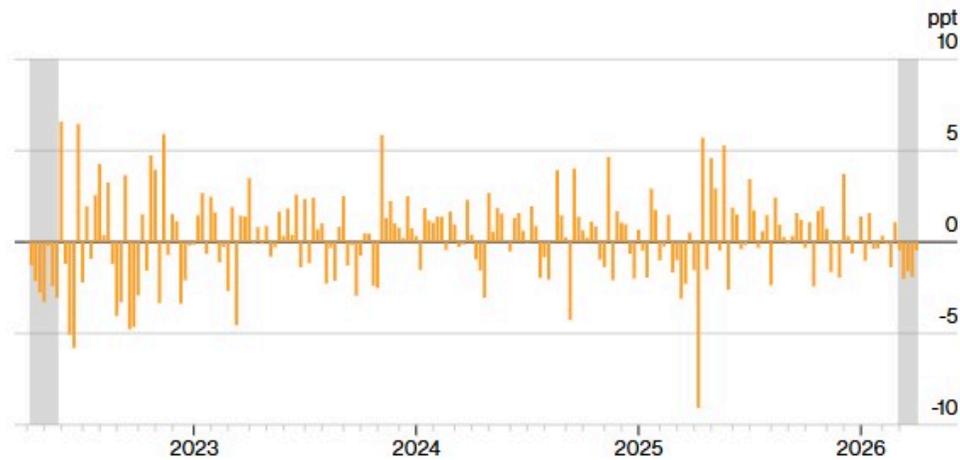
미 주식 계속 하락... 나스닥은 '조정 단계'로

- 미 주가는 금요일 하락 출발했으며, S&P 500과 Nasdaq 100은 오늘 금요일 1% 가깝게 하락 중이다.
- 이로써 나스닥은 10월 고점 대비 10% 이상 하락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정장(correction)에 진입했다.
-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가가 상승, 브렌트유는 배럴당 111달러까지 올랐고,
- Cboe 변동성 지수도 약 30으로 상승했다.
-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하락 전망은 악화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.
-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.46%로 올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.

Losing Streak

S&P 500 on Track for Longest Losing Streak Since 2022

■ S&P 500 Index weekly move



Source: Bloomberg

기사

[중동 위기]

Bloomberg: Iran and Israel Keep Up Attacks After Trump Extends Deadline

트럼프의 협상 여지 발언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계속 상호 공격

-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여러 걸프 지역 국가들을 공격했고, 이스라엘은 이란 내 미사일 및 기뢰 생산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공격하고 있다.
-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도록 합의하는 기한을 연장했으며, 트럼프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도
- 이란과의 협상이 "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"라고 말했다.
- 현재 중동 위기로 연료 부족이 발생하고 스태그플레이션(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)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Bloomberg: Roubini Sees US More Likely to Escalate in Iran Than Back Down

루비니 교수 “트럼프 이란 공격 수위 높일 가능성”

- 저명한 경제학자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현재 후퇴해 경제와 국제 질서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겪기 보다는, 승리를 이루어 이란과의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했다.
- 그는 전쟁을 확대했다가 패배할 가능성보다는 확대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매우 큰 리스크이며 전쟁이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.
- 또한 루비니 교수는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할 경우 이란이 석유 시설을 공격하여 1970년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. 이 경우 연준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.

[오일]

WSJ: Oil Shrugs Off Trump's 10-Day Pause as Truth Social Effect Wanes

오일 시장은 트럼프의 긴장 완화 언급 반응 없어... 고공 행진

- 석유 시장이 트럼프의 이란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내놓았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. 트럼프는 어제 목요일 이란 발전소 공격 기한을 10일 더 연장하고 “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”고 말한 바 있다.
- 이와 관련 브렌트유 선물은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글 직후 배럴당 약 101.5달러에서 98달러대로 잠깐 하락했지만 곧 반등했고, 현재는 103달러 이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.
- 반면 그 전인 월요일에는 트럼프가 공격을 5일 연기하며 “건설적인 협상”을 언급하자 유가가 10% 넘게 급락했다.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.

Most active Brent futures, Thursday



Source: Dow Jones Market Data

Bloomberg: Brace for \$200 Oil If War Lasts Until June, Macquarie Warns 호주 투자은행, “전쟁 6월까지 계속되면 오일 2백 불 가능성”

- 호주 투자은행 Macquarie Group은 이란 전쟁이 6월까지 계속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다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사상 최고치 2백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.
- 분석가 Vikas Dwivedi 등은 보고서에서, 올해 2분기까지 갈등이 이어질 경우 역사적으로 높은 실제 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며,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을 40%로 제시했다.
- 이 회사 분석가들은 “해협 폐쇄로 인해 원유와 정제유 가격이 모두 급등했다. 그만큼 혼란의 규모가 크기 때문”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.

[무역 전쟁]

WSJ: China Hits Back at U.S. With New Trade Probes Ahead of Trump-Xi Summit

미 중국 정상 회담 앞두고 중국도 무역 조사 실시

- 중국도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5월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미국을 상대로 두 건의 무역 조사를 시작했다.
- 첫 번째 조사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 행태를 겨냥하고 있으며,
-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
-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가을 무역 휴전을 체결했는데 무역 규모는 작년 2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, 여전히 감소 추세다.

[주택]

WSJ: Mortgage Rates Rise for Fourth Straight Week

미 모기지율이 연속 4주 상승

-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상승해 6.38%를 기록해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해 봄철 주택 구매 시즌에 위협을 주고 있다.
- Freddie Mac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.38%로, 지난주 6.22%에서 상승한 것.
-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신청은 지난주 5% 감소했으며, 일부 구매자들은 주택 구매를 미루거나 임대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.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Why MBA Tuition Keeps Rising 왜 MBA 학비 계속 오르나?

- 미국 내 수많은 MBA 과정의 학비가 오르고 있는데, 지난 4년 동안 평균 11%의 인상 폭을 기록했다.
- 학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운영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, 고등교육 물가지수(HEPI)에 따르면 대학 운영비는 적어도 1960년대 이후부터 줄곧 물가 상승률을 앞질러 왔다는 것.
- 교직원 급여를 포함한 보수 비용은 이러한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.
- 한편 세계경영대학협회(AACSB)의 자료에 따르면, 미국 경영대학원 교수진의 급여는 2020-21년도부터 2024-25년도 사이 17%나 인상돼 평균 21만 9천 불이다. 경영학교 교수진 연봉은 타 학과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편.

기사

Bloomberg: BYD Delivers Steeper-Than-Expected Profit Drop Amid EV Price War

세계 최대 중국 전기차 BYD, 예상보다 수익 저조

-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의 수익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급감했다. 중국 내 치열한 경쟁과 강화된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탓이라는 것.
-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13억 불로 38% 감소했고, 매출 역시 약 14% 줄어들며 모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.
- 또한 테슬라를 제치기 위해 단행한 공격적인 할인 정책이 실적에 독이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. 현재 BYD는 샤오미 등 신규 주자들의 첨단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내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.

기사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]



US 30	45,698.80	-260.6	-0.57%	📉
US 500	6,441.00	-36.1	-0.56%	📉
Dow Jones	45,711.94	-248.17	-0.54%	📉
S&P 500	6,441.75	-35.35	-0.55%	📉
Nasdaq	21,220.92	-187.16	-0.87%	📉
S&P 500 VIX	28.76	+1.32	+4.81%	📈
Dollar Index	99.70	-0.008	-0.01%	📉

미국 USD 1,510.00 ▲2.00 +0.13% <small>03.27. =</small>	유럽 EUR 1,741.33 ▲1.32 +0.08% <small>03.27. =</small>
일본 JPY 944.37 ▼0.08 -0.01% <small>03.27. =</small>	중국 CNY 218.24 ▲0.19 +0.09% <small>03.27. =</small>
유로/달러 1.1528 ▼0.0030 -0.26% <small>03.26.</small>	영국 파운드/달러 1.3327 ▼0.0035 -0.26% <small>03.26.</small>

환전고시환율
국제시장환율

🇺🇸 미국 USD
▼

1
1 달러

=

🇰🇷 대한민국 KRW
▼

1,510
1,510 원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